

# 주요 경제 정책 및 이슈

(95.7.21.~8.21.)

일자	내 용
7.2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채권 시장 정비 방안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7, 10, 13년물 하반기 발행</li> <li>▶ 금융채 종목 8 종으로 단순화</li> </ul> </li> </ul>
7.24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8월 채권 발행 최소화(7. 2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 단계 금리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실세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8월분 채권 발행을 최대한 억제</li> </ul> </li> </ul>
7.25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제 2차 증권 업무 규제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증권사의 대고객 신용 거래 이자율과 할부식 증권 저축 이자율을 자유화</li> <li>▶ 상장 기업의 무상 증자 한도 폐지외 33 건</li> </ul> </li> <li>◎ 휘발유 유통 세율 195%로 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월부터 현행 170%에서 탄력 세율 최고치인 195%로 인상</li> <li>▶ 이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현재 1 리터당 평균 589 원에서 638 원으로 오름</li> </ul> </li> </ul>
7.26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통신 사업체 연내 22 사 새로 설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제 전화 사업을 제외한 6 개 통신 분야 사업에서 최소한 2 개 이상 새로 설립 추진</li> <li>▶ 기술력, 연구 개발, 출연 능력 등 심사</li> </ul> </li> <li>◎ 내무부, 종합 토지 세율 인하 요청 수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과표 현실화가 본격화되는 96년의 경우 세 부담이 10% 이상 늘지 않도록 세율 인하</li> </ul> </li> <li>◎ 공업진흥청, 100PPM 품질인증제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100PPM(제품 100만 개중 불량품이 100 개 이하) 인증 우수 업체는 인력·자금·수의 계약 등에서 혜택</li> </ul> </li> </ul>
7.3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내무부, 지방자치단체의 은행 차입 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내무부 장관 승인 공문을 첨부할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은행 자금 차입 대출 승인</li> </ul> </li> </ul>
8. 2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재경원, 해외 투자시 자기 자본 비율 20% 이상으로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외채 누적 등 국가 경제의 장래를 고려</li> <li>▶ 적용 대상 사업 범위는 1억~3억 달러 이상</li> </ul> </li> <li>◎ 내무부, 지자체의 재정 확보 위해 탄력세율제도 적극 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자동차세, 지역 개발세 등 지방세의 세율을 표준 세율보다 50%까지 인상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

일자	내 용
8. 3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재경원, 해외 투자 자유화</li> <li>▶ 14 개의 해외 투자 제한 업종중 부동산 관련 4 개 업종을 제외한 10 개 업종 제한 해제</li> </ul>
8. 7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통상산업부, 외국 업체 덤핑 수출 규제 강화</li> <li>▶ 덤핑 조사 기간 단축 (8 개월 → 4 개월)</li> <li>▶ 피해 업체들이 조사 요청시 절차 간소화</li> </ul>
8. 8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재경원, 10 년 만기 국채의 조기 발행</li> <li>▶ 국채 3,000억 원어치 발행</li> <li>▶ 예정 시기 단축 (96년 하반기 → 95년 10월 18일)</li> </ul>
8. 9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재경원, 예금보험제 97년 시행</li> <li>▶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 고객 1 인당 최고 2,000만 원 지급</li> <li>▶ 대상 계정은 예금, 적금, 부금, 금전 신탁의 원금 및 이자. 단, CD와 금융채는 제외</li> </ul>
8.1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재경원, 증권산업 개편안 발표</li> <li>▶ 증권·투신사의 상호 진출 허용</li> <li>▶ 10대 그룹 계열 증권사는 투신사 단독 설립 불허. 단, 자문사 보유시 투신사로 전환만 가능</li> </ul>
8.12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재경원, 투신 산업 대외 개방 확대</li> <li>▶ 외국 투신사의 국내 지점 설치 허용(97년)</li> <li>▶ 국내 투신사에 대한 외국계 은행의 출자 한도 확대(10% → 30%)</li> </ul>
8.13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재경원,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방안 발표</li> <li>▶ 국내 거주 개인도 30만 달러까지 해외 부동산 구입 가능(95년내 허용)</li> <li>▶ 해외 직접 투자자중 한국은행 허가 대상 축소(1,000만 달러 → 3,000만 달러 이상)</li> </ul>
8.14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재경원,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세부 대책 발표</li> <li>▶ 어떤 형태의 부동산이든지 이를 담보로 자금 조달 가능(8. 21 시행)</li> <li>▶ 여신 금지 업종 사업자들도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 가능</li> </ul>
8.17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건설교통부,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축소</li> <li>▶ 지가 상승이나 투기 요인이 없어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중 2 개 시는 완전 자유화, 10 개 시도는 신고제로 전환</li> </ul>
8.2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정보통신부, 통신 장비 확보 계획(안) 마련</li> <li>▶ 98년까지 통신 장비 기술 개발 연구 지원(1조 4,000억 원)</li> <li>▶ 연구 개발 지원 대상은 PCS(개인 휴대 통신), 디지털 TRS(주파수 공용 통신) 등</li> </ul>